

D램 가격 13개월만에 2달러 회복

DDR2 현물가격 2.05달러 ... 주력제품 DDR3 전환으로 공급타이트

국내 반도체기업의 주력 제품인 DDR2 D램 현물가격이 13개월 만에 2달러를 회복해 반도체 시장 회복의 신호탄을 쏘아 올렸다.

시장조사기관 D램익스체인지에 따르면, DDR2 1Gb 128M×8 800MHz 현물가격은 최근 2.05달러를 기록해 2008년 8월 이후 처음으로 2달러 대에 진입했다.

현물가격은 타이완 등 반도체 시장에서 매일 거래되는 가격으로 수요 공급에 따라 변화하는데 최근 DDR2는 D램 주력제품이 DDR3로 넘어가면서 공급이 타이트해지자 가격이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

반도체기업이 대형 거래처에 공급할 때 적용되는 고정거래가격은 9월 하순 1.66달러를 기록해 초순에 비해 8.5%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09/09/29>